

시험포전이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

2012년 9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다가 잔디심기를 중요한 화제로 떠올리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잔디를 심을 때 그저 잡풀을 뽑아버리고 잔디씨를 뿌리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고나서 몸소 그 재배방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잔디를 심을 때에는 땅을 30~40cm깊이로 들추어내고 흙을 구워 보드라운 채로 쳐서 깔아야 한다. 잔디씨를 뿌린 다음에는 흙을 2~3mm 덮어주어야 한다. ...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품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어떻게 하나 우리 나라에 좋은 잔디를 많이 심으려고 잔디밭을 만들어놓고 화분에 꽃을 심어가꾸듯이 잔디를 키우면서 여러가지 시험을 해보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뇌리에는 한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가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께서 계시는 정원으로 들어서던 일군들은 한순간 약속이나 한듯 걸음을 멈추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정원의 한 포전앞에 서시여 그것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계시였던것이다.

호기심이 부쩍 동했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방해가 될듯싶어 일군들은 못박힌듯 서있었다. 이윽하여 일군들을 알아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까이 오라고 손저어 부르시었다.

포전으로 다가온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에 수십종에 달하는 새 품종의 잔디를 들여왔는데 앞으로 그 잔디를 다 심어보고 그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품종의 잔디를 골라 온 나라에 퍼치자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가 흘러넘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새겨보는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러한 일군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어 잔디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었다.

오늘 잔디씨를 뿌리고 그우에 무방포를 씌웠는데 며칠 지나면 수염이 나는것처럼 가느다란 싹이 돋아나오고 한달이 지나면 잎이 푸르러지게 된다. 그때 가서 보면 정말 볼만하다. ...

그날의 사연을 되새기는 일군들의 가슴은 마냥 젖어들었다.